

##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영국의 변호사 아말 알라무딘

등록 2014.08.08 16:10:45 | 수정 2016.12.29 19:54:34



【서울=뉴스is】박영주 기자 =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53)가 영국의 변호사 아말 알라무딘(36)과 이탈리아에서 결혼한다.

앞서 클루니는 지난 4월 알라무딘과 약혼했다.

이들의 결혼은 7일 런던의 구청 게시판 결혼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게시물에는 두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결혼한다고 기재돼 있다. 결혼식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레바논에서 태어난 알라무딘은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를 변호했고,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영국의 국제법, 인권, 외국법인 인도·형법 전문 변호사다. 영어, 아랍어, 불어에 능통하다.

노던 켄터키대학을 나온 클루니는 1980년대 중반 여배우 드디 파이터를 시작으로 켈리 프레스턴, 데니스 크로스비, 킴벌리 러셀, 캐런 더피, 셸린 발리트랑, 브루크 랭턴, 라사 스노든, 테일러 하워드, 줄리아 로버츠, 르니 젤위거, 마리엘라 프로스트럽, 제니퍼 시벨, 크리스타 앨런, 엘리사베타 커널리스, 스테이시 키블러 등과 사귀었다. 1989년 배우 탈리아 볼섬과 결혼, 3년 뒤 이혼했다.

알라무딘은 초혼이다.

